

茶戶里遺蹟에 보이는 倭 관련 고고자료에 대하여

井上主税(이노우에 치카라)*
이동관 譯**

I. 머리말

II. 다호리유적에 보이는 倭的 요소

1. 1호묘 출토 중세형동모
2. 彌生土器

III. 한반도 남부 諸類似例의 검토

1. 영천 용진리 목관묘 출토 중세형동모
2. 彌生土器

IV. 기원전 1세기 후반의 한일교섭에 대하여

1. 중세형동모로 본 한반도 남부와
北部九州의 관계
2. 왜계유물의 변천으로 본 다호리 1호묘의
평가

V. 맺음말

삼도 출전

*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 福岡大學

I. 머리말

필자에게 부여된 과제는 다호리유적에 보이는 倭的 요소에 대하여, 즉 왜와 관련된 고고자료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다호리 1호묘가 축조된 기원전 1세기경의 ‘왜’라 함은 『漢書』地理志에는 “낙랑군의 바다 건너에 왜인이 있으며 百여 國으로 나뉘고 漢의 관청이 있는 낙랑군까지 정기적으로 朝見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 당시 왜는 낙랑군을 介在로 하여 漢과의 빈번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彌生시대 중기부터 고분시대 중기에 걸친 왜계 유물을 통하여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 초까지의 한일 교섭을 검토한 적이 있다¹⁾. 그 때 다호리 1호분에서 출토된 中細形銅矛의 존재에도 주목하였다. 그것은 한반도 남부에 유입된 왜계 청동기 중에서도 出現期의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彌生토기만으로 이루어지던 왜계 유물이 이 다호리 1호묘 단계부터 차츰 청동기를 중심으로 한 유물군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양상에서 교섭형태의 변화 등 한일 교섭의 획기를 읽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왜계 청동기는 다호리 1호묘 출토의 중세형 동모 1점뿐으로, 자료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호리 1호묘와 동시기로 보이는 영천 용전리 목관묘에서 중세형동모가 1점 채집되었다²⁾. 그것에 주목하여 여기에서는 용전리 목관묘에서 출토된 중세형동모와 함께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자료의 평가를 재검토하고 동아시아적인 시점으로 당시의 교섭형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호리유적에 보이는 倭的 요소

다호리유적에서 보이는 倭的 요소 또는 왜와 관련된 자료로는 이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井上主税, 2006, 『嶺南地方 出土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遺蹟』

1. 1호묘 출토 중세형동모<도면 1>

1호묘 목관 밑에 위치한 요갱 내 竹篋에 부장되어 있었다. 竹篋에는 漆鞘銅劍・漆鞘鐵劍・木製劍把附鐵劍・동모 등의 무기류, 주조철부・木柄附鎌形鐵器・漆鞘環頭刀子 등의 利器類, 星雲文鏡・鋸齒文銅環・馬鐸・靑銅帶鉤 등의 청동기류 외에 오수전이나 칠기 등도 출토되었다.

동모는 匙面狀 樋(혈구)과 하측이 넓어지는 釜部 하단에 節帶를 갖추고 있다³⁾. 중세형 동모 중에서도 늦은 형식의 c류이며, 중광형동모에 가까운 것이다. 全長은 55.2cm, 釜部 徑은 3.6cm, 關部幅은 5.7cm이다.

일반적으로 중세형동모는 전장이 약 50~69cm에 속하며, 耳가 節帶에 붙는 것이다. 釜部 下端의 節帶 폭, 耳 구멍의 대소, 공부 측면 돌출부의 돌선화 유무, 匙面狀 樋(혈구)의 유무, 鋒部 넓이 등에서 中細形 a류, 中細形 b류, 中細形 c류로 세분된다⁴⁾. 이 중 中細形 c류는 공부하단의 절대폭이 2cm 전후로 나팔형을 띠는 것이다. 또 匙面狀 樋(혈구)을 형성하고 공부 측면의 돌출부가 돌선화한다. 중세형동모는 일본열도의 경우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분묘의 부장품뿐만 아니라 매납품으로도 사용된다. 彌生 중기 전반부터 후반에 걸쳐 보이는 형식이며 이 중 c류는 중기 중엽부터 후반경에 보인다. 형식학적으로 보아도 공부 하단의 절대폭이 나팔형을 띠는 등 한반도의 형식변천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경우는 왜계 유물로 판단된다⁵⁾. 또 한반도에서는 용범의 출토 예가 없는 것에 비하여 北部九州에서는 吉武(요시다케)유적이나 有田(아리타)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 彌生土器<사진 1>

단도마연을 행한 유개대부호가 있으며, 호의 구연부에는 개를 올리기 위한 소성 전의 천공이 보인다. 채집품이기 때문에 출토상황이 명확치 않아 본래 어떠한 유구에서 출토

3) 譯者附言 : 본문에서 사용하는 동모의 세부명칭에 관해서는 필자가 제시한 용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林昭延, 2006, 『弁・辰韓地域 出土 銅矛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을 참고하였다.

4) 동모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岩永省三, 1980, 「彌生時代靑銅器型式分類編年再考—劍矛戈を中心として—」 『九州考古學』55 나 岩永省三, 1986, 「銅矛」・「矛形祭器」 『彌生文化の研究』6 (雄山閣)Ⅱ를 참조

5) 吉田廣, 2003, 「東北アジア靑銅器文化からみた韓國靑銅器文化に關する研究-第四章 朝鮮半島出土の倭系武器形靑銅器」 『靑丘學術論集』22

되었는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출토 彌生(系)토기의 대부분은 패총이나 주거지에서 출토되나 지내동 옹관묘와 같이 須玖Ⅱ式の 袋狀口緣壺가 부장된 예도 있어 이 자료의 경우도 분묘에서 공반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호는 무경호에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각부가 부착되는 것으로 胴下半部에 동최대경이 위치한다. 구연부 밑으로 1조, 胴下半部에 2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돌대의 단면형태는 M자형이다. 동부 및 각부상반 외면에 종방향의 마연이 확인된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으로 돌아가며, 둥그스름한 端部面을 띠고 있다. 器高는 23.2cm, 口徑은 14.7cm, 脚部高는 10.8cm, 脚部徑은 13.8cm이다.

개는 기고가 낮고, 頂部에 평탄면을 가진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이 확인된다. 器高는 2.6cm, 口徑은 14.9cm이다.

이 자료들은 단도마연된 토기로서 돌대의 단면형태나 구연부의 형태등으로 보아 須玖Ⅱ式⁶⁾ 중에서도 늦은 단계<도면 3>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Ⅲ. 한반도 남부 諸類似例의 검토

다음으로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중세형동모와 須玖Ⅱ式 토기의 한반도 남부 類似例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1.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중세형동모<도면 1·4>

용전리 목관묘에는 관내에 동경이나 검장식구 등의 청동기나 토기, 유리옥 등이 부장되고 요갱 내에는 마탁이나 동포 등 청동기나 유리옥이 부장되었다. 목관 보강토 상면에는 주조철부나 토기 외에도 동제과초, 동과, 검파두식, 마탁 등의 청동기가 보이며 그 내부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노기나 동과, 오수전이 목관묘 주변에서 채집되었다. 오수전이나 동경편(성운문경?), 와질토기로 보아 다호리 1호묘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형동모는 주민에 의한 신고품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⁷⁾. 당초 이 자료는 鋒部가 결

6) 武末純一, 1987, 「須玖式土器」『彌生文化の研究』4, 雄山閣

실되어 있었으나, 잔존부분이 유구 상면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이 목관묘에서 공반 출토된 것으로 판단되고 본래는 봉토 속에 부장된 유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韓系유물로서 ‘중형동모’라고 보고되었으나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중세형동모와 동일한 형식을 보인다. 全長은 51.3cm, 銚部徑은 3.3cm, 關部幅은 5.8cm이다.

다호리 1호묘와 용전리유적은 모두 대형의 목관묘이고 집단묘와 단독묘라는 차이는 있지만 부장품 내용이나 厚葬을 한 점 등 공통점도 많다. 전한경이나 노기 등의 중국(낙랑)계 유물이 부장되며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을 엿볼 수 있다.

2. 彌生土器<도면 2>

한반도 남부에서 기원전 1세기 彌生 중기 후반(須玖Ⅱ式)의 彌生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전 단계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고 사천 늑도유적⁸⁾에 그 출토가 집중된다⁹⁾. 늑도유적 이외에는 사천 방지리유적¹⁰⁾, 김해 회현리패총¹¹⁾, 김해 지내동 옹관묘¹²⁾ 울산 달천유적¹³⁾에서 須玖Ⅱ式에 해당하는 토기가 확인되었다.

기원전 2세기에는 彌生토기가 영남지방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나 이 단계에는 김해나 사천이라는 교역거점에서 그 출토가 집중되어진다. 이 배경에는 낙랑군 설치와 함께 이루어진 교역 루트의 정비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울산 달천유적에는 철광산이 위치하고 있고 실제 수혈에서 철광석도 출토되었다. 여기서 철소재를 입수하고자 했던 倭人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Ⅳ. 기원전 1세기 후반의 한일교섭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왜와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다호리 1호묘가 축조된 기원전

7) 보고된 기타 유물에는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모, 철착, 철파가 포함되어 있다.

8)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 『늑도주거지』외

9) 井上主税, 註1)의 前掲論文

1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사천 방지리 유적 I・II・III』

11)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 2002, 『김해 회현리패총』

12) 심봉근, 1982, 『김해 지내동 옹관묘』 『한국고고학개보』 12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 달천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 제13집

1세기 후반의 한일교섭에 대하여 고찰하고, 왜계 유물로 본 다호리 1호묘의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1. 중세형동모로 본 한반도 남부와 北部九州의 관계

다호리 1호묘가 축조된 기원전 1세기 후반은 일본열도의 彌生 중기 후반에 해당하며 낙랑군을 통한 중국과의 교섭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 교섭의 결과 다수의 전한경을 비롯한 유리벽, 金銅四葉座飾金具 등의 중국(낙랑)계 유물이 三雲南小路(미쿠모미나미쇼우지)1호 옹관이나 須玖岡本(스구오카모토) D지점 옹관 등의 北部九州 ‘王’묘를 중심으로 부장된다. 또 武器形 祭器로의 변질이 시작된 중세형동모도 부장되었다<도면 5·6>.

한편,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중세형동모가 부장된 다호리 1호묘도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됨과 함께 전한경이나 청동제 대구 등의 중국(낙랑)계 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한 단계의 ‘王’묘이다.

이와 같이 각각 일본열도 및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낙랑)계 유물이 유입되는 단계의 ‘王’묘로 평가되고, 兩者에 중세형동모가 부장되는 것은 그 관계가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열도에서는 제기화된 청동무기 중에서도 동모가 최고위에 위치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가진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 아울러 이 때부터 철제무기가 보급되어 부장용 무기형품으로 채용되면서도 北部九州의 ‘王’이나 유력수장들은 여전히 이 中細形 무기형청동기의 부장을 고집한 점¹⁵⁾도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기원전 1세기의 전한(낙랑군)과 北部九州와의 교섭은 중시된 반면, 한반도 남부와 北部九州의 관계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고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변한과 전한(낙랑군)과의 교섭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 이유로서 예컨대, 이 시기 北部九州의 ‘王’들이 입수한 위세품이 한반도계 청동무기류에서 전한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계 유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北部九州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중국(낙랑)계 유물의 구성이 다르므로 낙랑군과의 교섭이 각각 다른 루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三雲南小路 1호 옹관이나 須玖岡本 D지점 옹관에서 보이는 대형경, 유리벽, 금동사엽좌식금구

14) 廣瀬和雄, 1993, 「彌生時代首長のイデオロギー形成」, 『彌生文化博物館研究報告』第2集

15) 岩永省三, 1988, 「青銅武器形祭器生成考序説」, 『日本民族文化の生成』

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지 않으며¹⁶⁾, 반대로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家常富貴鏡은 北部九州에서 출토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형동모를 통한 양자의 연결은 당시 국제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낙랑)계 유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왜계 중세형동모가 부장되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세형동모와 같은 위신재의 존재나 중국(낙랑)계 유물과의 공반관계<도면 7>로 보아 낙랑군을 통한 北部九州와 전한과의 교섭에는 한반도 남부의 수장층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남부를 사이에 두지 않은 직접적인 교섭도 있었겠지만 전한(낙랑군) - 한반도 남부(韓) - 北部九州(왜)라는 삼자간의 교섭관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 중세형동모가 다호리(변한) 뿐만 아니라 경북권의 영천지역(진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은 중요하다. 용전리 목관묘도 다호리 1호묘와 같이 중국(낙랑)계 유물이 부장되나 그 입수 루트는 변한의 다호리와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후에는 청동기의 유통부터 대구 - 경산 - 영천 - 경주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어¹⁷⁾, 근거리 교역뿐만 아니라 원거리교역을 할 때에도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변한과는 중국계 유물을 입수하는 루트가 다르다고 한다면 北部九州의 왜인들은 다호리와는 다른 입수 루트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왜계유물의 변천으로 본 다호리 1호묘의 평가

한반도 출토의 왜계 유물로 보아도 다호리 1호묘 단계는 상당히 큰 획기이다<도면 8>. 즉 彌生토기로 이루어진 유물군이 이후에는 왜계 청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군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지금까지 기원 전후의 왜계 청동기(대구 만촌동이나 비산동에서 출토된 중광형동모·동과)의 유입에 주목하고 그 배경으로 이 시기가 彌生시대 중기부터 후기로의 전환기이며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의 결과(교역형태의 변화)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다호리 1호묘나 용전리 목관묘에서 출토된 중세형동모를 통하여 이미 기원

16)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 青木書店

岡村秀典, 1999, 『三角縁神獸鏡の時代』, 吉川弘文館

17) 李清圭, 2001, 「기원 전후 慶州와 周辺の 交流－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辺地域』, 학술문화사

18) 井上主税, 註1)의 前掲論文

전 1세기 중엽에는 왜계 청동기가 한반도 남부에 유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호리 1호묘나 용전리 목관묘에 중세형동모가 부장되는 배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왜계 청동기가 중국(낙랑)계 유물과 공반되는 예가 있으므로¹⁹⁾ 이 시기에 낙랑군과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과 관련되리라 추정된다²⁰⁾.

한편, 다호리유적에서는 왜와 관련된 자료로서 彌生토기와 왜계 청동기의 양자가 확인된다²¹⁾. 일반적으로, 한반도남부에서 이 양자는 출토유구의 성격이나 분포양상이 다르며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 또한 다르다²²⁾. 이것은 ‘일상재’인 토기와 청동기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위세품)은 각각 유입되는 경로나 배경, 그리고 사용되는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다호리유적에서 양자가 모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당시 北部九州의 수장들은 다호리 1호묘에서 보이는 판상철부나 주조철부 등의 철소재 획득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 대가가 왜계 청동기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고급 絹物 등 현재 고고자료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묘에 부장된 중세형동모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낙랑군을 통한 전한과의 교섭, 외래교역품의 입수와 관련된 北部九州 수장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彌生토기의 존재를 통해 일상적인 교역도 彌生 중기 전반부터 계속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중층적인 교섭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V. 맺음말

다호리유적이 발굴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중요성은 여기서 재차 서술할 필요

19) 井上主税, 註1)의 前掲論文

20) 보충하여 청동기뿐만 아니라 토기에 대해서도 서술한다면, 다호리 1호묘 축조 후인 기원후 1세기가 되어 彌生토기의 출토량이 극감하는 이유로는 중국 왕조가 전한에서 후한으로 변화하고 사천 늑도유적과 같이 교역의 중개자가 그 역할을 잃는 등 교역형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1) 이밖에 彌生토기와 청동기의 양자가 확인되는 유적으로서는 고성 동외동패총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국립중앙박물관, 1992, 『고성패총』

22) 李盛周, 2004, 「加耶-倭의 相互作用에 대한 考古學의 解析」, 『伽耶文化』 16
井上主税, 註1)의 前掲論文

도 없으며 일본고고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호리 1호묘에서는 다종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용기나 붓 등의 漆製品이 눈에 띈다. 당시 일본열도에서도 北部九州의 ‘왕’묘에 전한계 유물이 부장되고 그 때문에 중국(낙랑군)과의 관계 연구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다호리 1호묘에 부장된 중세형동모의 존재를 통해 중국(낙랑군) - 한반도남부(韓) - 북부구주(왜)의 삼자간 교섭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반도 남부의 중국(낙랑)계 유물과 왜계 청동기의 유입이 거의 동일한 시기인 것이나 왜계 청동기가 출토된 분묘 등에서 중국(낙랑)계 유물이 공반되는(혹은 근접한 유적에서 중국계 유물이 보인다) 것은 이 시기 한반도 남부와 北部九州의 국제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동아시아적인 교역관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삼도 출전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戸里遺蹟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 1 / 國立慶州博物館, 2007, 『永川 龍田里遺蹟』 / 松本岩雄・足立克己編, 1996, 『出雲神庭荒神谷遺蹟』 島根縣古代文化センター

井上主税, 2006

武末純一, 1987을 근거로 작성

井上主税,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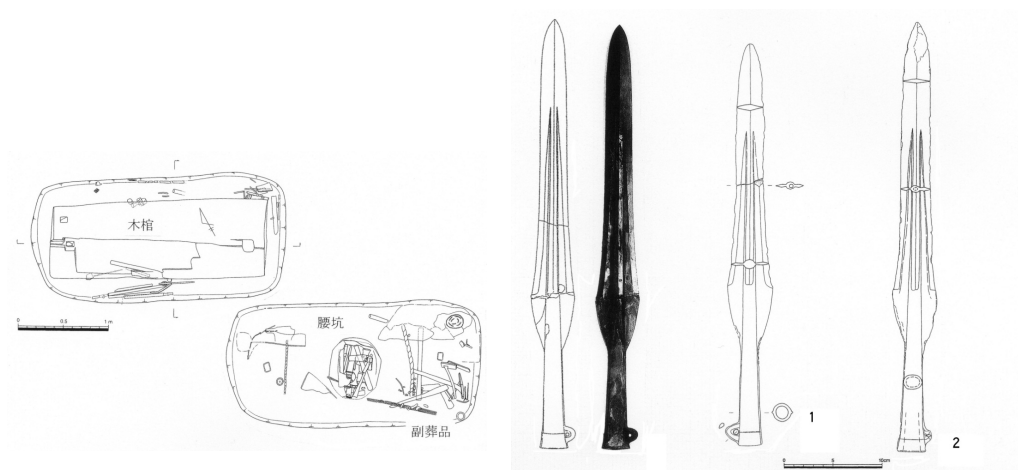
高倉洋彰, 1991, 『3 農耕の開始とクニの出現』 『新版 古代の日本』 3, 1 : 岩永省三, 1982, 『須玖遺蹟D地点出土青銅利器的再検討』 『MUSEUM』 373, 2 : 柳田康雄編, 1985, 『三雲遺蹟—南小路地區編』 福岡縣文化財調査報告書 69, 3 : 岡崎敬編, 1977, 『立岩遺蹟』, 福岡縣飯塚市立立岩遺蹟調査委員會

井上主税, 2006 / 鄭仁盛, 2003 『弁韓・加耶의 對外交渉』 『加耶考古學의 새로운 照明』 해안을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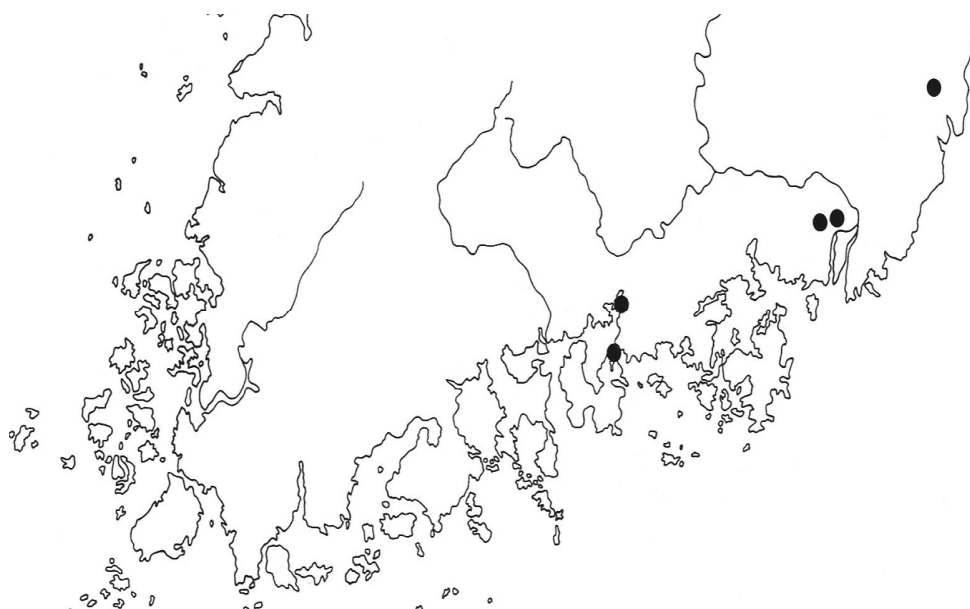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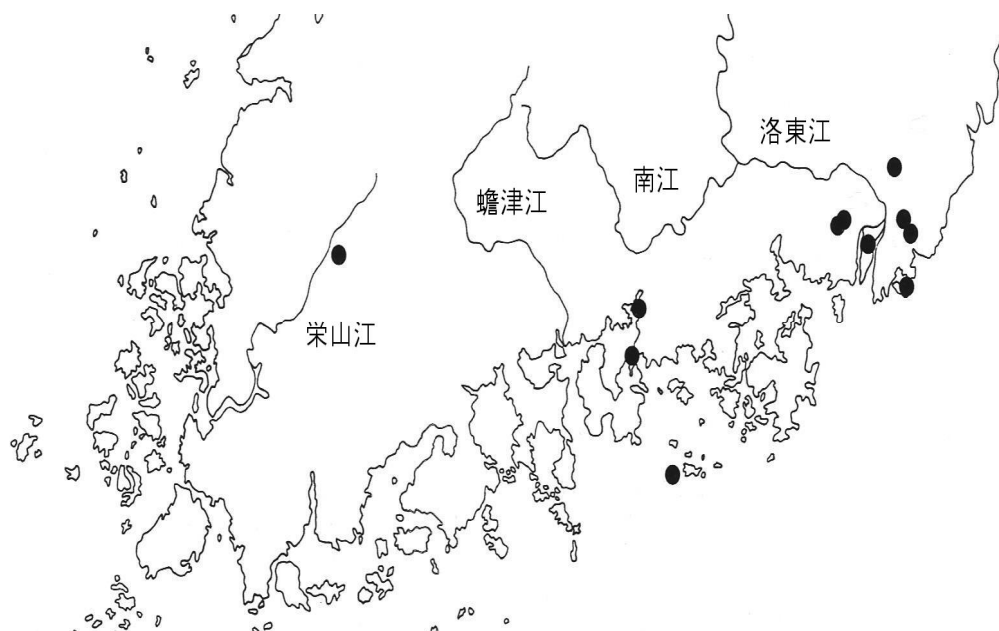
井上主税,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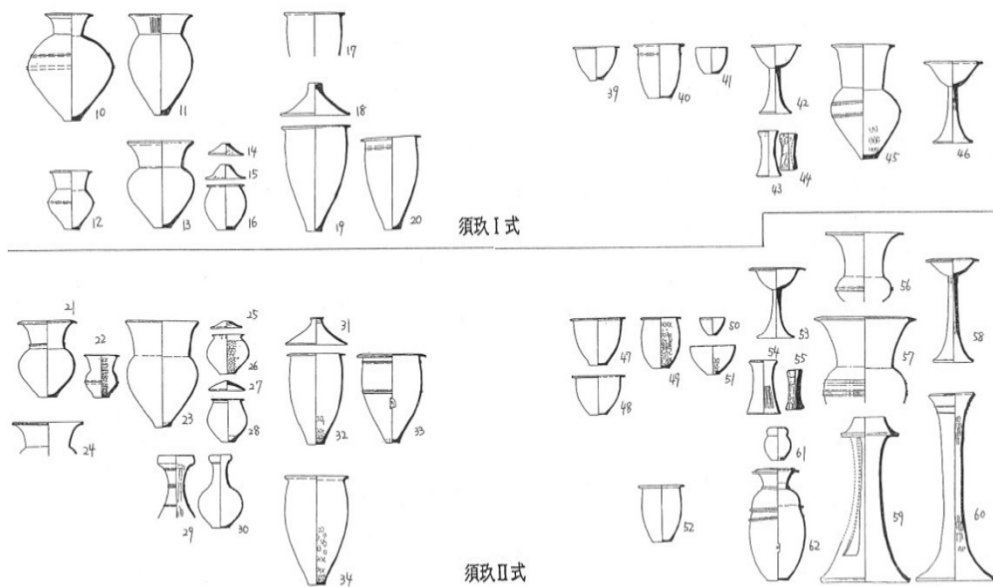
사진 1. 다호리유적 채집토기(須玖Ⅱ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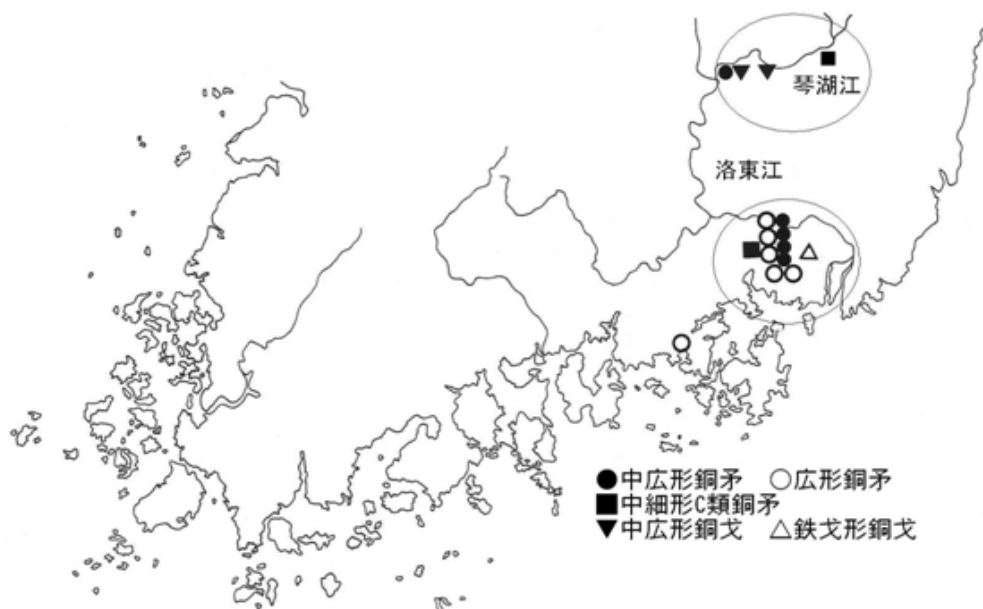
도면 1.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중세형동모와 그 유례(1 : 龍田里, 2 : 瓦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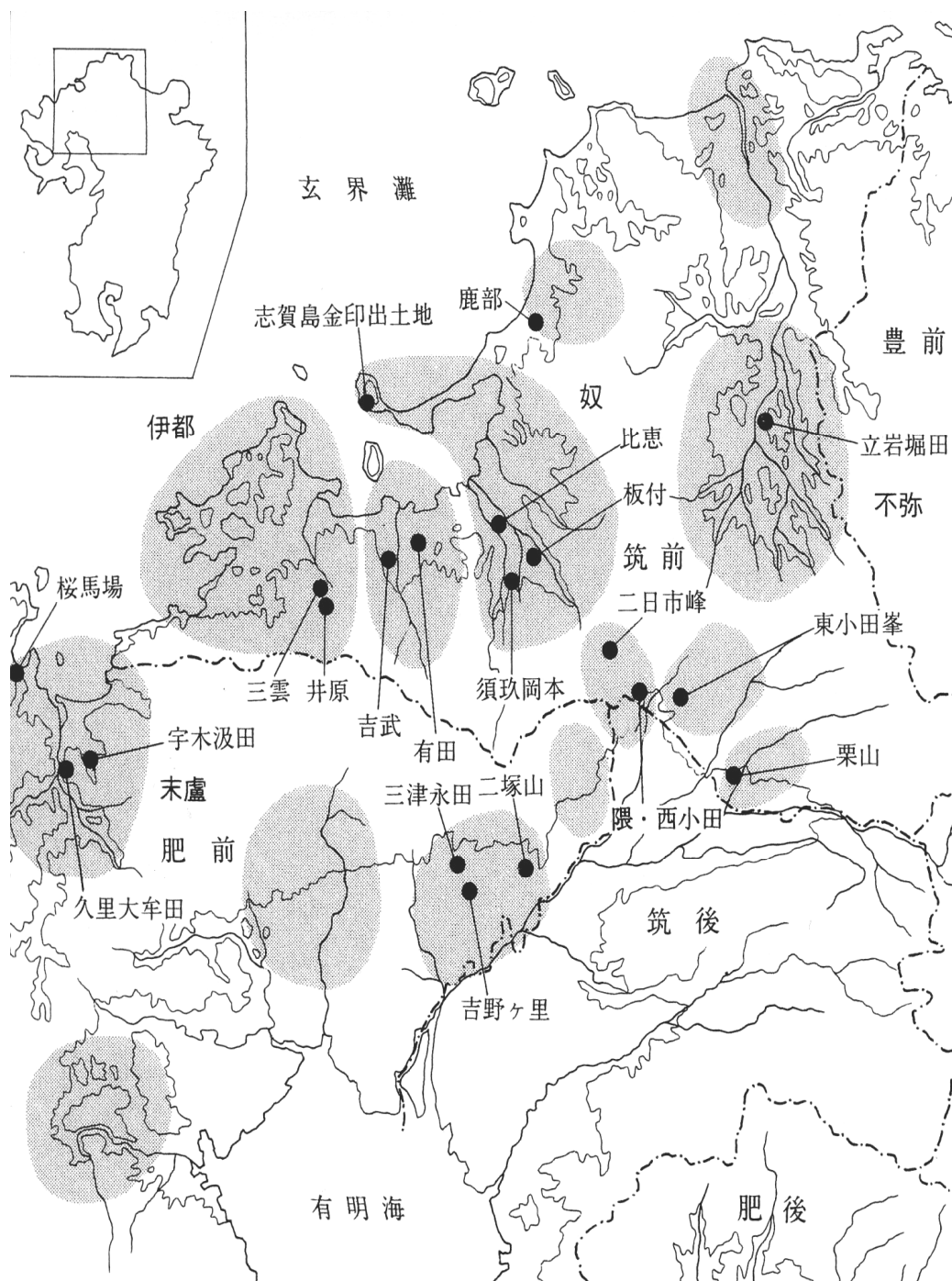
도면 2. 야요이토기의 분포(上: 중기 전반/ 下: 중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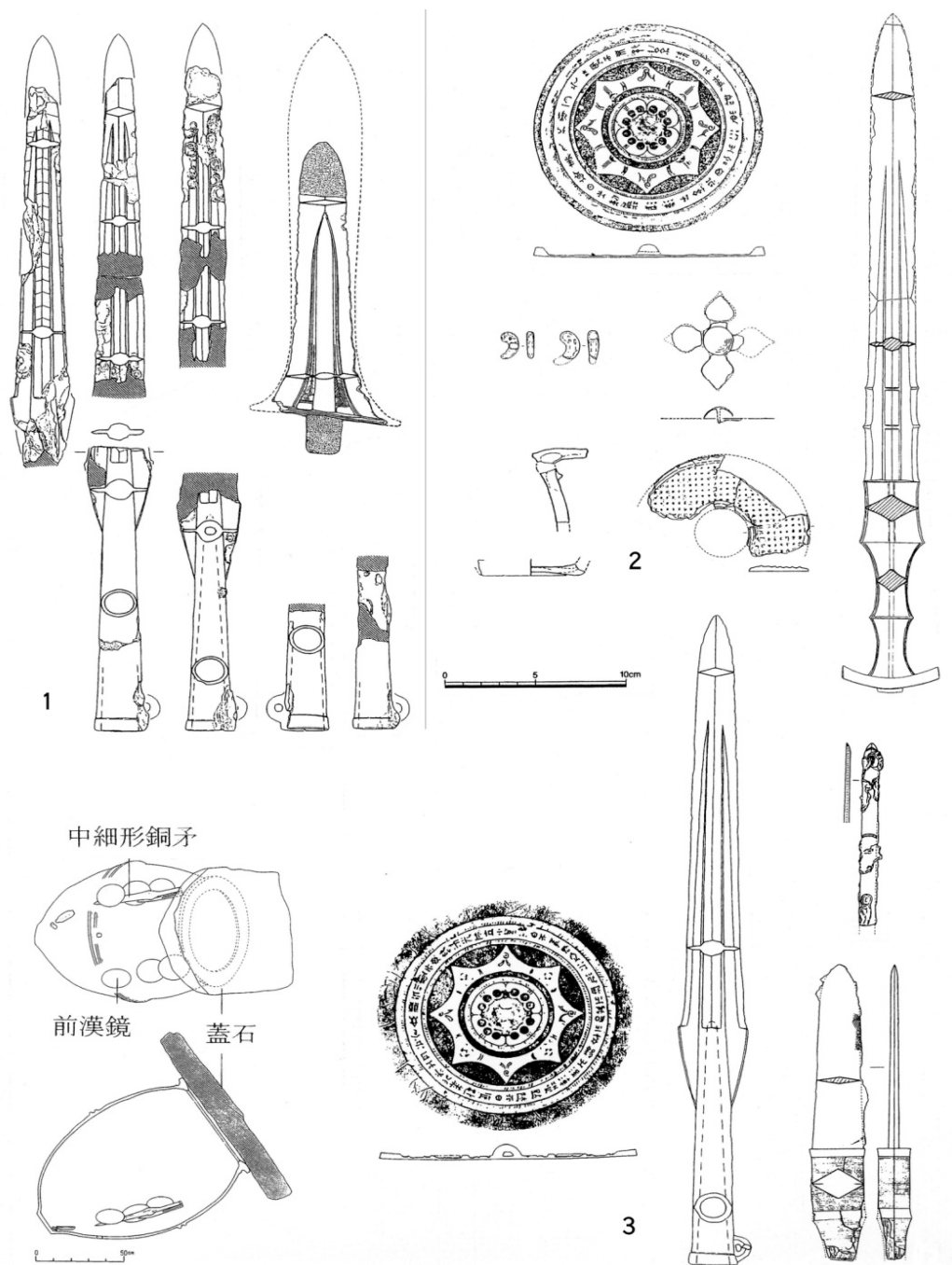
도면 3. 須玖Ⅰ식토기 및 須玖Ⅱ식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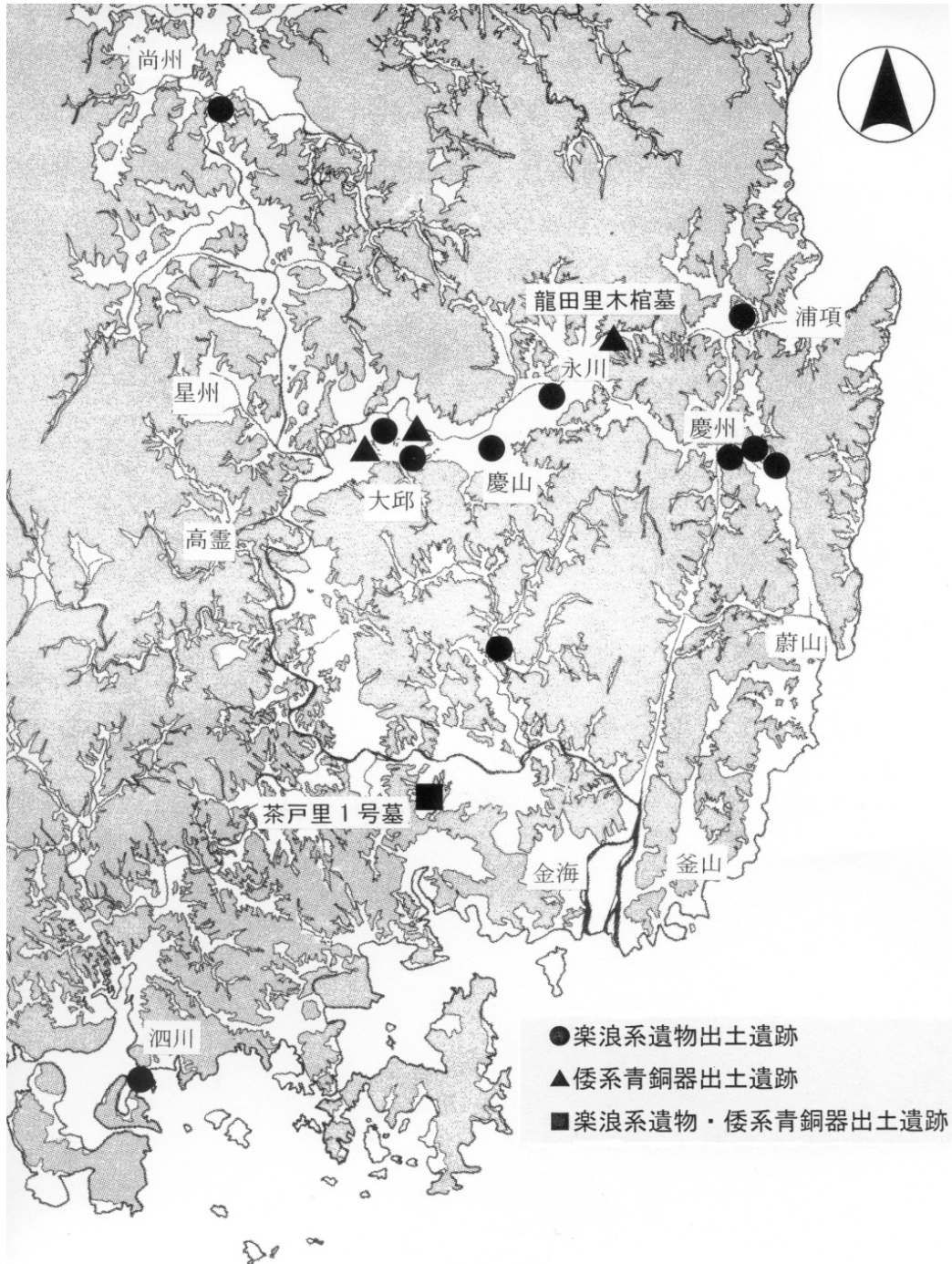
도면 4. 倭系武器形青銅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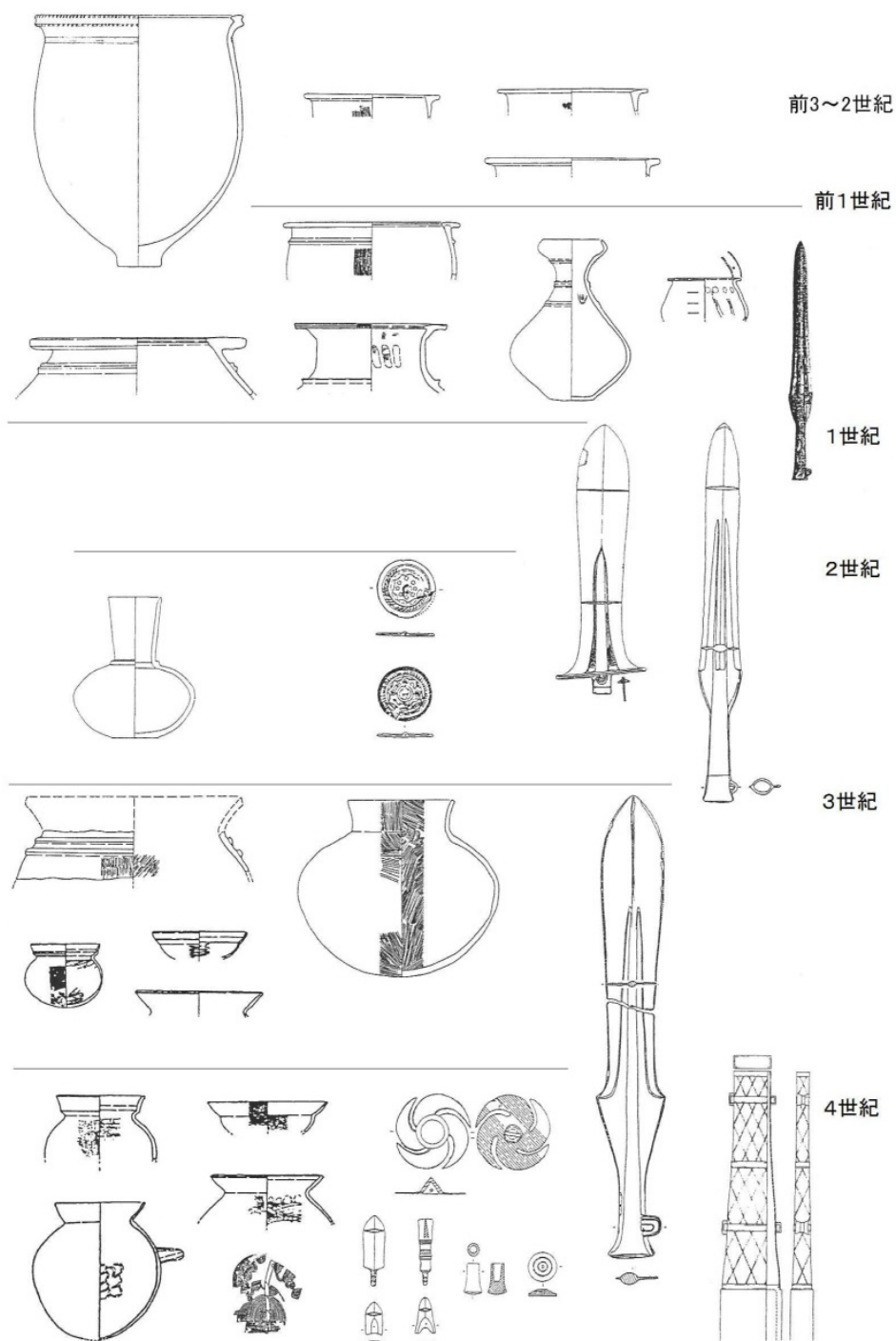
도면 5. 북부규슈의 '國'



도면 6. 북부규슈의 「王」墓 부장품(1: 須玖岡本D地点甕棺 2: 三雲南小路1號甕棺 3: 立岩遺蹟10號甕棺)



도면 7. 낙랑계 유물과 왜계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의 분포



도면 8. 한반도 출토 왜계 유물의 변천

茶戸里遺跡にみられる倭と関連する考古資料について

井上主税*

I. はじめに

私に与えられた課題は茶戸里遺跡にみられる倭的要素について、すなわち倭と関連する考古資料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である。茶戸里1号墓が築造された紀元前1世紀頃の倭という、『漢書』地理志には「楽浪郡の海のむこうに倭人があり、百余りの国に分かれ、漢の役所のある楽浪郡まで定期的に朝見していた」とある。このことから、当時の倭は楽浪郡を介在した漢との頻繁な交渉をおこな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

私は博士学位論文で、弥生時代中期から古墳時代中期にかけての倭系遺物を通じて、紀元前3世紀から紀元後5世紀初めまでの日韓交渉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¹⁾。その際、茶戸里1号墓から出土した中細形銅矛の存在にも注目した。それは半島南部に流入した倭系青銅器のなかでも出現期の資料にあたるためである。それまでの弥生土器のみからなる倭系遺物が、この茶戸里1号墓段階から次第に青銅器を中心とする遺物群へと変化しており、そこに交渉形態の変化など日韓交渉における画期を読み取ろうとしたわけである。ただし、紀元前1世紀後半の倭系青銅器は茶戸里1号墓出土の中細形銅矛1点のみであり、資料的な限界もあった。

ところが最近になって、茶戸里1号墓と同一時期とみられる永川龍田里木棺墓から中細形銅矛が1点採集された²⁾。それゆえ、ここでは龍田里木棺墓から出土した中細形銅矛を加えて、茶戸里1号墓から出土したこの資料の評価を改めて検討し、東アジア的視点から当時の交渉形態について考察を加えてみたい。

*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1) 井上主税、2006、『嶺南地方 出土 倭系遺物と 韓日交渉』、慶北大学校大学院 博士学位論文

2) 国立慶州博物館、2007、『永川 竜田里遺跡』

Ⅱ. 茶戸里遺跡にみられる倭的要素

茶戸里遺跡でみられる倭的要素ないしは倭と関連する資料には、以下の二つがあげられる。

1. 1号墓出土 中細形銅矛(図面 1)

1号墓木棺下に位置する腰坑内の竹筐に副葬されていた。竹筐には漆鞘銅剣、漆鞘鉄剣、木製剣把附鉄剣、鉄矛などの武器類、鑄造鉄斧や木柄附鎌形鉄器、漆鞘環頭刀子などの利器類、星雲文鏡、鋸齒文銅環、馬鐸、青銅帶鈎などの青銅器類のほかに、五銖銭や漆器なども出土した。

銅矛は匙面状の樋と下側が広がる袋部下端節帯をそなえている³⁾。中細形銅矛の中でも新しいc類であり、中広形銅矛に近いものである。全長 55.2cm、袋部径 3.6cm、関部幅 5.7cmを測る。

一般的に中細形銅矛は全長がおおむね 50～69cmに収まり、耳が節帯にかかるものである。袋部下端の節帯幅、耳の孔の大小、袋部側面にみられる甲張りの突線化の有無、匙面状の樋の有無、鋒部の広がり具合などから中細形a類、中細形b類、中細形c類の3つに細分されている⁴⁾。このうち中細形c類は袋部下端の節帯幅が2cm前後で、裾広がりとなったものである。また匙面状の樋を形成しており、袋部側面の甲張りが突線化する。中細形銅矛は日本列島では北部九州を中心に分布しており、墳墓の副葬品だけでなく埋納品としても使用されている。弥生中期前半から後半にかけてみられる型式であり、このうちc類は中期半ばから後半頃に認められる。型式学的にみて袋部下端の節帯が裾広がりになるなど、韓半島での型式変遷にみられない要素をもつため、韓半島で出土した場合は倭系遺物と判断される⁵⁾。また、韓半島で鋳型の発見例がないのに対し、北部九州では吉武遺跡や有田遺跡などで確認されている点もこれを裏付ける。

2. 弥生土器(写真 1)

丹塗磨研をおこなった有蓋台付壺であり、壺の口縁部には蓋を取り付けるための焼成前穿孔がみられ

3) 訳者附言：銅矛の細部名称については、林昭延、2006、『弁・辰韓地域出土銅矛研究』、釜山大学校碩士學位論文を参照。

4) 銅矛の型式分類については、岩永省三、1980、『弥生時代青銅器型式分類編年再考—劍矛戈を中心として—』、『九州考古学』55や岩永省三、1986、『銅矛』・『矛形祭器』、『弥生文化の研究』6（雄山閣）Ⅱを参照。

5) 吉田広、2003、『東北アジア青銅器文化からみた韓国青銅器文化に関する研究—第四章朝鮮半島出土の倭系武器形青銅器』、『青丘学術論集』22

る。採集品のため出土状況は明らかでないが、本来どのような遺構に伴ったものなのか注意を要する。すなわち、韓半島出土の弥生(系)土器のほとんどは貝塚や住居跡で出土するが、池内洞甕棺墓のように須玖Ⅱ式の袋状口縁壺が副葬された例もあり、この資料についても墳墓にともなった可能性がある。

台付壺は、無頸壺にラッパ状に開く脚部が取り付けもので、胴部下半に最大径を持つ。口縁部下に1条、胴部下半に2条の突帯がめぐり、突帯の断面形態はM字状である。胴部および脚部上半の外面に縦方向のミガキ(磨研)が確認される。口縁部はほぼ水平に曲がり、丸みを帯びながら端部に面をもつ。器高 23.2cm、口径 14.7cm、脚部高 10.8cm、脚部径 13.8cm。

蓋は器高が低く、頂部に平坦面をもつ。外面には縦方向のミガキ(磨研)が確認できる。器高 2.6cm、口径 14.9cm。

これら資料は丹塗磨研された土器であり、突帯の断面形態や口縁部の形状などから須玖Ⅱ式⁶⁾のなかでも新しい段階(図面3)と考えられる。

Ⅲ. 韓半島南部における諸類例の検討

次に、これら茶戸里遺跡から出土した中細形銅矛と須玖Ⅱ式土器の韓半島南部における類例について検討してみる。

1. 永川竜田里木棺墓出土 中細形銅矛(図面 1・4)

竜田里木棺墓では、棺内に銅鏡・剣装具などの青銅器や土器、ガラス玉などを副葬し、腰坑内には馬鐸や銅泡(鉦)などの青銅器やガラス玉を副葬していた。木棺裏込め(補強)土上面では铸造鉄斧や土器のほか、銅製戈鞘、銅戈、剣把頭飾、馬鐸などの青銅器がみられ、その内部からは土器が出土した。また弩機や銅戈、五銖銭などが木棺墓周辺で採集された。五銖銭や銅鏡片(星雲文鏡か)、瓦質土器などからみて、茶戸里1号墓とはほぼ同じ時期の築造と推定される。

中細形銅矛は住民による申告品の中に含まれる⁷⁾。当初この資料は鋒が欠失していたが、残りの部分が遺構上面から採集されたため、この木棺墓にともなうものと判断された。本来は封土中に副葬された遺

6) 武末純一、1987、「須玖式土器」『弥生文化の研究』4(雄山閣)

7) 申告された他の遺物には板状鉄斧、鍛造鉄斧、鉄矛、鉄鑿、鉄戈が含まれている。

物と推測される。この資料は韓系遺物として「中形銅矛」と報告されるが、茶戸里1号墓から出土している中細形銅矛と同一型式とみられる。全長 51.3cm、袋部径 3.3cm、関部幅 5.8cmを測る。

茶戸里1号墓と竜田里遺跡はともに大形の木棺墓であり、集団墓と単独墓の違いはあるものの、副葬品の内容や厚葬である点など共通点も多い。前漢鏡や弩機などの中国(楽浪)系遺物が副葬されており、また鉄器が本格的に普及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2. 弥生土器(図面 2)

韓半島南部では紀元前1世紀の弥生中期後半(須玖Ⅱ式)の弥生土器が出土した遺跡は、前段階に比べるとそれほど多くなく、泗川靑島遺跡⁸⁾にその出土が集中する⁹⁾。靑島遺跡以外では、泗川芳芝里遺跡¹⁰⁾、金海会峴里貝塚¹¹⁾、金海池内洞甕棺墓¹²⁾、蔚山達川遺跡¹³⁾で須玖Ⅱ式に該当する土器が確認されている。

紀元前2世紀には、弥生土器が嶺南地方各地で散発的に認められたが、この段階には金海や泗川といった交易拠点にその出土が収斂していく。この背景には楽浪郡設置にともなう交易ルートの整備が関連するものと推定される。また、蔚山達川遺跡には鉄鉾山が位置しており、実際に堅穴からは鉄鉾石も出土した。鉄素材を入手しようと活動していた倭人の姿がうかがえる。

Ⅳ. 紀元前1世紀後半の日韓交渉について

ここでは、前章で検討した倭との関連資料を通じて、茶戸里1号墓が築造された紀元前1世紀後半における日韓交渉について考察する。倭系遺物からみた茶戸里1号墓の評価についても言及してみたい。

8) 釜山大学校博物館、1989、『靑島住居址』ほか

9) 註1文献

10) 慶南発展研究院 歴史文化センター、2007、『泗川 芳芝里遺跡Ⅰ-Ⅱ-Ⅲ』

11) 釜山大学校 人文大学 考古学科、2002、『金海 会峴里貝塚』

12) 沈奉謹、1982、『金海 池内洞 甕棺墓』、『韓国考古学概報』12

13) 蔚山文化財研究院、2006、『蔚山 達川遺跡』蔚山文化財研究院現場説明会資料 第13輯

1. 中細形銅矛からみた韓半島南部と北部九州の関係

茶戸里1号墓が築造された紀元前1世紀後半は、日本列島では弥生中期後半に該当し、楽浪郡を通じて中国との交渉が始まった時期である。その結果、多数の前漢鏡をはじめガラス璧、金銅四葉座飾金具などの中国(楽浪)系遺物が三雲南小路1号甕棺や須玖岡本D地点甕棺といった北部九州の「王」墓を中心に副葬された。また、武器形祭器への変質をはじめた中細形銅矛も副葬されている(図面5・6)。

一方、日本列島で製作された中細形銅矛が副葬される茶戸里1号墓も、韓半島南部において鉄器が本格的に普及するのとあわせて、前漢鏡や青銅製帯鉤などの中国(楽浪)系遺物が副葬され始めた段階の「王」墓である。

このように、それぞれが日本列島および韓半島南部において中国(楽浪)系遺物が流入する段階の「王」墓として評価でき、両者に中細形銅矛が副葬されていることはその関係が緊密であっ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そして、日本列島では祭器化した青銅武器のなかでも、銅矛が最高位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ことから、それが持つ意味合いは大きい¹⁴⁾。さらに、この頃から鉄製武器が普及し、それらが副葬用武器形品として採用されつつあるなかであって、北部九州の「王」や有力首長たちはこの中細形武器形青銅器の副葬に固執していた¹⁵⁾点も看過できない。

これまで、紀元前1世紀の前漢(楽浪郡)と北部九州との交渉は注目される一方、韓半島南部と北部九州の関係にはそれほど関心を持たれなかった。これは韓国考古学においても同様で、辰・弁韓と前漢(楽浪郡)との交渉が主な研究対象とされてきた。その理由として例えば、この時期に北部九州の「王」たちの入手した威信材が、半島系の青銅武器類から前漢鏡を中心とする中国系遺物へ変化したことがあげられる。また、北部九州と韓半島南部で出土した中国(楽浪)系遺物の構成が異なるため、楽浪郡との交渉がそれぞれ別ルートでおこなわれた可能性が想定されたからであった。具体的には、三雲南小路1号甕棺や須玖岡本D地点甕棺でみられる大型鏡、ガラス璧、金銅四葉座飾金具が韓半島南部では出土しておらず¹⁶⁾、逆に韓半島南部で出土した家常富貴鏡も北部九州では出土していない。

しかし、中細形銅矛を通じた両者の結びつきは、当時の国際関係を反映している。特に、韓半島南部に中国(楽浪)系遺物が流入し始める時期に、倭系の中細形銅矛が副葬されている事実は示唆すると

14) 広瀬和雄、1993、「弥生時代首長のイデオロギー形成」、『弥生文化博物館研究報告』第2集

15) 岩永省三、1988、「青銅武器形祭器生成考序説」、『日本民族・文化の生成』

16) 高倉洋彰、1995、『金印国家群の時代』(青木書店)

岡村秀典、1999、『三角縁神獣鏡の時代』(吉川弘文館)

ころが大きい。中細形銅矛のような威信財の存在や中国(楽浪)系遺物との共伴関係(図面7)からみて、楽浪郡を通じた北部九州と前漢との交渉には、韓半島南部の首長層も介在した可能性が高いといえる。もちろん、韓半島南部を介さない直接的な交渉もあったであろうが、前漢(楽浪郡)－韓半島南部(韓)－北部九州(倭)という三者間の交渉関係を積極的に評価したい。

さらには、この中細形銅矛が茶戸里(弁韓)だけでなく、慶北圏の永川地域(辰韓)でも確認された事実は重要である。竜田里木棺墓では茶戸里1号墓と同様、中国(楽浪)系遺物が副葬されるが、その入手ルートは弁韓の茶戸里とは異な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紀元前後には、青銅器の流通から大邱－慶山－永川－慶州を連結する交易網が形成されており¹⁷⁾、近距離交易のみならず、遠距離交易をおこなう際にも利用されたと推測される。もし、弁韓とは中国(楽浪)系遺物を入手するルートが異なるのであるならば、北部九州の倭人たちは茶戸里とは別の入手ルートをも確保していたといえる。

2. 倭系遺物の変遷からみた茶戸里1号墓の評価

韓半島出土の倭系遺物からみても、茶戸里1号墓段階は非常に大きな画期である(図面8)。すなわち、弥生土器からなる遺物群が、これ以降は倭系青銅器を中心とする遺物群へと変化しているためである¹⁸⁾。これまで、紀元前後の倭系青銅器(大邱晩村洞や飛山洞出土の中広形銅矛・銅戈)の流入が注目され、その背景としてこの時期が弥生時代中期から後期への転換期であり、鉄を媒介とする交易の結果(交易形態の変化)と考えられてきた。しかし、茶戸里1号墓や竜田里木棺墓から出土した中細形銅矛からは、すでに紀元前1世紀半ば頃には倭系の青銅器が韓半島南部に流入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そのため、この時期の評価をあらためて行う必要がある。

茶戸里1号墓や竜田里木棺墓に中細形銅矛が副葬される背景は、さきに述べたように倭系青銅器が中国(楽浪)系遺物と共伴する例があることから¹⁹⁾、この頃に楽浪郡との交渉が本格的に始まったことと関連すると推定される²⁰⁾。

17) 李清圭、2001、『紀元 前後 慶州와 周辺과의 交流－土器와 青銅器를 中心으로－』、『国家形成期 慶州와 慶州와 周辺地域』(学術文化社)

18) 註1 文献

19) 註1 文献

20) 補足として、青銅器だけでなく土器についても述べるなら、茶戸里1号墓築造後の紀元後1世紀になり弥生土器の出土量が激減する理由には、中国王朝が前漢から後漢へと変化した、四川勸島遺跡のような交易の仲介者がその役割を終えるといった交易形態の変化があったものと推測される。

ところで、茶戸里遺跡では倭と関連する資料として、弥生土器と倭系青銅器の両者が認められる²¹⁾。通常、韓半島南部においてこの両者は出土遺構の性格や分布様相が異なり、集中的に出土する時期もまた異なる²²⁾。これは「日常財」である土器と、青銅器のような象徴的な意味を内包するもの(威信材)はそれぞれ流入する経路や背景、そして使用される意味も異なるためあらわれた現象といえる。そのため、ここで茶戸里遺跡において両者がみられる理由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い。当時北部九州の首長たちは、茶戸里1号墓でみられる板状鉄斧や鑄造鉄斧などの鉄素材の獲得をめざしていたと推測されるが、その代価が倭系青銅器であったとは考えにくく、高級絹など現在では考古資料として遺り難い品物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それゆえ、「王」墓に副葬された中細形銅矛がもつ意味については、楽浪郡を通じた前漢との交渉、外来交易品の入手と関連する北部九州の首長たちの政治的な意図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その一方で、弥生土器の存在からは、日常的な交易も弥生中期前半から引き続いて行わ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重層的な交渉関係を想定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V. おわりに

茶戸里遺跡が発掘されて20周年を迎えた。その重要性はここであらためて述べる必要もなく、日本考古学のなかでも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茶戸里1号墓では多種多様な副葬品が出土しており、なかでも容器や筆などの漆製品が目をひく。この頃から日本列島でも北部九州の「王」墓に前漢系遺物が副葬されており、そのため中国(楽浪郡)との関係に研究の重点が置かれてきた。しかし、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茶戸里1号墓に副葬された中細形銅矛の存在からは、韓半島南部をも含めた、中国(楽浪郡)－韓半島南部(韓)－北部九州(倭)の三者間の交渉関係が重要である。また、韓半島南部における中国(楽浪)系遺物と倭系青銅器の流入がほぼ同じ時期であることや、倭系青銅器が出土した墳墓などでは中国(楽浪)系遺物が共伴する(もしくは近接する遺跡で中国系遺物がみられる)ことは、この時期の韓半島南部と北部九州との国際関係が非常に緊密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それゆえ、今後このような視点をもって、東アジアにおける交易関係をさらに検討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よう。

21) この他、弥生土器と青銅器の両者が確認される遺跡としては、固城東外洞貝塚があげられる程度である。国立中央博物館、1992、『固城貝塚』

22) 李盛周、2004、「加耶－倭の相互作用에 대한 考古学的 解釈」、『伽耶文化』16

註1 文献